



### 세계 의약품 시장 성장을 꾸준!

세계의 의약품 매출은 2002년 4006억달러 (회계감사 후) 및 4303달러(회계감사 전)로 8%가 증가했다. IMS에 따르면, 세계경기의 약화 및 신제품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의약품 시장은 2002년 강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비등록상표의 매출은 일본에서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북미 및 서유럽에서는 몇몇 특허가 만기됨에 따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노령화 및 혁신적 치료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2003년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북미, 유럽(EU) 및 일본은 2002년 세계 의약품 소비비중이 85%에 달했다. 북미의 의약품 매출은 2036억달러로 12%가 증가해 세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럽(EU)은 906억달러로 8%가, 유럽 나머지 지역은 113억달러로 9%가, 일본은 469억달러로 1% 증가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의약품 매출은 316억달러로 11% 증가한 한편 라틴아메리카는 165억달러로 10% 감소했다. 상위 10대 치료분야의 매출비중이 31%에 달했는데 3개 분야는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Triglyceride) 경화제, 항정신병치료제

(Antipsychotics) 및 EPO(Erythropoietin 적혈구생성바이오효약품)로 성장률이 각각 10% 이상이다. 위궤양 치료제인 Anti-Ulcerant의 매출은 2002년 219억달러로 9%가 증가했고 세계 매출비중이 6%로 13년 동안 선도적인 위치를 이어왔다. 세계의 선도적 Anti-Ulcerant 제품인 Losec/Prilosec (Omeprazole)은 매출이 52억달러에 달했다. 2위 치료분야인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경화약품은 2002년 매출이 217억달러로 12%가 증가했다. 3위 치료분야인 항우울성제(Antidepressant)는 171억달러로 5% 증가했다. 세계 10대 베스트셀링 약품의 2002년 매출은 447억달러로 2001년보다 11% 증가했다. Lipitor는 매출이 2001년 70억달러에서 2002년 86억달러로 증가해 1위를 차지했고 콜레스테롤 경화약품인 Zocor는 62억달러로 13%가 증가해 2위에 올랐다. Losec/Prilosec의 매출은 52억달러로 2001년보다 19%가 감소해 3위로 밀려났다. 세계 상위 10대 판매약품 가운데 성장이 가장 빠른 약품은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및 조울증(Bipolar Disorder) 치료약인 Zyprexa인데 2002년 매출은 40억달러로 전년대비 21% 증가했

다.

#### 아벤티스, 백신사업 육성에 사운 걸었다

"우리의 수막염 백신이 장차 한해 매출규모가 10억 유로(11억5,000만 달러) 안팎의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벤티스社가 지난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애널리스트·투자자 미팅에서 밝힌 미래 청사진의 한 대목이다.

새로운 수막염 백신이 올해 안으로 발매되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소아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벤티스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아벤티스측은 기존의 수막구균성 수막염 백신인 '메노문'(Menomune)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기간 효능지속형 백신 '메낙트라'(Menactra)가 올해 말까지 FDA의 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막염 백신은 아벤티스社의 전체 백신 매출에서 5% 정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 아벤티스의 백신사업부는 지난해 1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5억8,0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아벤티스측은 "수막염 백신이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백신사업부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해 80억 유로의 볼륨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 백신시장에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와이어스, 머크 등과 1위 자리를 다투고 있는 아벤티스에 수막염 백신이 전략품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것. 실제로 수막염 백신은 최근들어 수요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품목이다. 학생과 군인들을 주요 접종대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이 백신의 수요자층에 2세 이하의 소아들이 새로 편입되고 있기 때문. 아벤티스

측은 "이에 따라 수막염 백신의 한해 매출 규모가 10억 유로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세계 헬스케어 분야에서 그 동안 제약사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뒤졌던 백신사업 부문의 매출성장률이 이제는 오히려 제약사업의 그것을 앞지르는 양상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추세라고 강조했다. 아벤티스측은 세계 백신시장의 규모가 오는 2012년도에 이르면 지금의 3배 안팎으로 확대될 수 있으리라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벤티스社의 백신사업부인 아벤티스 파스퇴르社를 이끌고 있는 다비드 윌리엄스 회장은 "현재 우리는 소아용 복합백신에서부터 청소년과 성인층을 겨냥한 백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백신을 개발·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윌리엄스 회장은 "지난달 분사를 선언했던 영국 사이어 파마슈티컬스 그룹(Shire)의 백신사업부를 매입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인수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사이어측은 투자은행 베어 스톤社에 위탁해 인수후보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의 백신 메이커 베르나 바이오텍社(Berna Biotech) 등도 유력한 후보자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벤티스측이 사이어의 백신사업부에 러브콜을 타진할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해 매출액이 2,000만 달러 정도여서 그리 크지 않은 외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북미 백신시장의 공략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아벤티스측의 구미가 당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아벤티스는 내년 중으로 소아용

복합백신 '펜타셀'(Pentacel)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P) 백신 '아다셀'(Adacel)에 대한 허가를 FDA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도 호흡기계 합포체성 바이러스의 일종인 덩그열 억제용 백신과 AIDS 백신, 직장결장암 및 흑색종 백신 등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지난 26일에는 사스(SARS) 백신의 공동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美 국립알러지·감염성질환연구소(NIAID)와 제휴계약을 맺었다. 아벤티스의 알란 자르비스 R&D 담당부회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사스 백신이 앞으로 1년 6개월~2년 이내에 임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의약품 명칭 통일화 및 규격화

식약청은 의약품 일반명의 명명법에 대한 원칙을 세워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약품 안전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키 위해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최근 선진국을 선두로 급속한 과학의 진보에 힘입어 고부가가치의 신약개발이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의약품 규격설정의 국제조화(ICH) 요청에 발맞추어 의약품 개발 시 그 명칭의 통일 및 규격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근래 국제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의약품명칭의 일반명(INN) 제정지침을 마련했으며 일본, 영국, 미국에서도 각국의 일반명 제정지침을 제정,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약품규격과는 이화여대 김길수 교수팀과 공동작업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우리나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 명칭의 통일에 기여토록 했다. 그 내용은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했을 때 기존의 의약품의 명칭과 혼돈을 방지하고 그 약

의 약효 등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명칭의 지침을 마련하고 또한 수입의약품명칭을 한글로 명명할 때 필요한 통일된 규칙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2010년까지 최소 10종의 신약 개발과 세계 신약개발국 7위 진입을 목표로 한 정부의 신약 개발지원 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 것으로 국산 우량 신약을 위시한 의약품들이 세계 의약품시장에 우뚝 설 때를 대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의약품명명법가이드라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http://www.kfd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내 의약시장 선진국형 변화 전망

국내의약시장이 소득증가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생활습관병(이하 성인병) 및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개선 의약품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과거 국내의약시장에서는 항생제, 영양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한번 복용하면 평생 복용해야하는 순환기계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치료제들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변화는 우선 소득의 증가에 기인한 것. 소득의 증가에 따라 생활패턴이 서구화되면서 성인병이 증가하고, 구매력도 늘어 발기부전치료제나 골다공증치료제 등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는 의약품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연령층'인 노인인구의 경우 최근들어 약에 대한 구매력도 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성인병이나 QOL의약품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고은지 연구원은 "200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국내 노인인구비중은 7.4%로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GDP(국내총생산)

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기준으로 5.1%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치인 7.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노인인구는 2020년경에는 2배로 늘어나고 의료비지출규모는 GDP대비 7%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효능군별 의약품 생산실적을 보더라도 2002년에 처음으로 순환기계약품 비중은 14.6%로 항생제 13.7%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가 진전된 선진국의 경우 순환기계 약품의 비중은 약 20%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2년 정신신경용제 생산의 경우도 전년 대비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정신병 치료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등 국내의약 시장은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 아벤티스-美NIAID, SARS 백신 개발 계획

아벤티스는 미국 국립 알러지 감염질환 연구소(NIAID)와 함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벤티스는 자사의 비활성화된 폴리오 백신과 유사한 방법을 이용하여 SARS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구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임상 시험 단계에 들어설 SARS 백신 후보약물이 발견되기까지는 약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벤티스는 이전에도 국립 알러지 감염질환 연구소, 국립보건원과 함께 SARS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었다. 올해 초 아벤티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선별하기 위한 검체를 무상 증정한 적이 있으며 캐나다 SARS 연구 컨소시엄과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LG생명과학 살균제 판권 넘겨

LG생명과학(대표 양홍준)은 일본 스미토모 상사의 농약부문 자회사인 '스미트아그로유럽(Summit-Agro Europe)'과 살균제 '가디안'을 세계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LG생명과학은 스미토모에 가디안의 세계시장 판매권을 주는 대신 그 대가로 판매권 이전료 800만달러(약 94억원)와 함께 원료 독점생산·공급권, 매출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로열티는 일정 수준 이상 판매되면 판매액의 10% 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토모는 LG에서 가디안 원료를 제공받아 다양한 완제품으로 만든 뒤 해외시장에 내다팔게 된다. 가디안(성분명 에타복삼)은 오이, 포도, 감자, 고추 등 과수 원예에 발생하는 노균병과 역병 치료에 효과를 내는 살균제로 지난 2000년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다. LG생명과학은 사람과 가축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기존 살균제보다 크게 낮은 환경친화적 제품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항성 병원균의 퇴치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진호 LG생명과학 상무는 "세계 과수 원예용 살균제 시장규모는 약 5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서유럽 시장이 약 70%를 차지한다"며 "이번 제휴 파트너인 스미토모는 농약과 관련한 글로벌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어 이 제품의 유럽등록과 함께 유럽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판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현재 새로운 물질을 사용한 제조제 개발이 거의 끝난 상황이며, 이제품도 해외 유통회사를 통해 판매권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G생명과학은 이에 앞서

FDA(미국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신약 '팩티브'에 대한 판매권도 미국 회사에 이전한 바 있다.

### 성인에게도 제대혈이식 가능

지금까지 소아에만 이식이 가능했던 제대혈(탯줄혈액)을 성인에게도 이식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 가톨릭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오일환 교수팀은 체중 30Kg 이하의 소아에게만 이식돼 온 제대혈 줄기세포를 성인에게도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 미국에 특허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부 세포융용연구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논문은 혈액 질환 분야 권위저널인 블러드(Blood)지 30일자에 실릴 예정이다. 자신의 탯줄을 보관했다가 백혈병이나 암치료 등에 다시 사용하는 제대혈이식기술은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골수이식을 대신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1개의 탯줄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 수가 적어 지금까지 소아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동안 제대혈을 성인에게도 사용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탯줄 혈액을 동시에 이식하는 연구를 시도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오 교수는 두 종류의 탯줄혈액을 함께 이식하면 서로 면역학적 경쟁을 벌여 둘 중 하나만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이번 동물실험에서 밝혀냈다. 또한 뼈, 연골, 신경 등으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미리 배양해 이들과 함께 이식하면 두 종류의 탯줄혈액을 모두 살려 이식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오 교수는 "탯줄 혈액을 성인의 골수이식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조만간 임상시험을 신

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책 R&D사업 절대평가로 바뀐다

국책 연구개발(R&D)사업 관리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지적돼온 '상대평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고,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해 관계자도 평가(참여과제 제외)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히 다단계로 이루어진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연차평가가 폐지되는 대신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각종 평가에 시달려온 산·학·연 연구원들에게 희소식을 던져주고 있다. 과기부는 28일 '연구관리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기부 차원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당장 내년초부터 시행에 옮기고 관련 규정 개정과 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국과위에서 최종안이 나오는데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우선 추진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그동안 과학기술계에서 줄기차게 강조해 온 국책연구관리제도 전반의 개선내용을 폭넓게 수용했다는 평가다. 특히 연구사업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해 가능한 사업에 한해 사업 원년에 기획에 전념하고, 이듬해부터 실제 R&D에 주력하는 '선기획 후예산' 방식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향후 국가 R&D제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개선안의 핵심 사항인 연구사업기획 및 평가 시스템 외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 많다. 우선 각 부처의 정산제도 및 규정·서식을 통일하고 연구원 참여율 100% 제한,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건비 제한 등 연구비 편성·사용의 명시적 제한을 철폐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교수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대학의 간접비를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 연구비 정산을 완화키로 한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연구사업의 성과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연구성과 종합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연구개발 보고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사후 추적조사 및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고 기초, 응용, 개발 등 R&D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씨앗’ 과 ‘열매’ 의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과기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기술이전에 따른 로열티에 대해 실제 연구개발한 주관기관의 사용분에 대해 자율권을 확대키로 한 것도 과기계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각종 개발 로열티 수익에 대해선 예산 당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아 사용이 제한된다. 과기계에선 "이는 일선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국과위에서 범부처안으로 최종, 확정돼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풀어야할 숙제가 적지않다. 국과위에서 의결된다해도 부처별 성격과 관련규정이 달라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각 부처마다 R&D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 특정 과제를 우선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과기계 전문가들은 “개혁에 따르는 일정부분의 반대급부는 있게 마련”이라며 “이번 개선안이 국내 국가 R&D환경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기폭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글루코파지 XR' 제네릭 1호 FDA 승인

제네릭 메이커 아이박스社(Ivax)의 주가가

28일 美 증권거래소(AMEX)에서 8.2% (1.48달러) 뛰어오른 19.48달러를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이처럼 아이박스社의 주가가 눈에 띄는 반등세를 기록한 것은 그동안 FDA에서 조기허가(oNDA)가 검토되어 왔던 메트포르민 염산염 서방형 제제가 최종허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메트포르민 염산염 서방형 제제는 브리스틀 마이어스 스쿼브社(BMS)가 발매해 온 블록버스터 2형 당뇨병 치료제 '글루코파지 XR'의 제네릭 제형. 이로써 아이박스의 메트포르민 염산염 서방형 제제는 '글루코파지 XR'의 제네릭 제형 1호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아이박스측은 곧바로 '글루코파지 XR'의 제네릭 제형을 시장에 공급할 방침으로 있다. 이와 관련, BMS는 지난 2000년 '글루코파지' 오리지널 제형의 특허가 만료된 이후로 독점 발매권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오리지널 제형에 대한 제네릭 품목들은 이미 지난해 초에 무더기로 발매 승인이 이루어진 바 있다. '글루코파지 XR'의 경우 최근 1년 동안(6월말 기준) 4억 5,3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특허가 만료된 이후의 통계치임을 감안하면 적잖은 수준의 실적인 셈. 아이박스측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트포르민 서방형 제제가 당장 올해 4/4분기부터 회사의 매출실적 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이박스는 지난해 12억 달러의 매출실적을 기록했었다. 이 회사의 나일 플란츠라이치 회장은 "메트포르민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승인받음에 따라 회사의 제품 파이프라인을 한층 다양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매출 실적 신장에도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이박스는 플

로리다州 마이애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네릭 메이커이다.

### 산삼성분 함유 의약품·건강식품 활기

인삼 홍삼에 이어 최근에는 최고의 명약으로 일컬어지는 산삼을 활용한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돼 지친 제약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워낙 희귀하고 채취량이 적어 천연 산삼을 그대로 의약품이나 식품원료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산삼에 들어있는 특이 성분을 생명공학이나 효소전환기술 조직배양기술 등을 응용하여 대량 생산한후 이 성분을 이용하여 캡슐이나 드링크제로 개발한 것. 지금까지 알려진 제품으로는 최근 발매돼 빅히트를 예고하고 있는 중근당의 산에는 삼'을 비롯하여 동성제약의 '동성산삼배양근원'등 드링크제와 녹십자PBM의 '이뮤노업진'과 어삼' 동성제약의 '동성산삼배양근' 광동제약의 '광동산삼배양근' 일진제약의 '어인마니산삼'등 캡슐제, 원광제약의 '원광보화경옥고'등 경옥고제 등이 발매됐다. 발매된 산삼제품의 특징은 대부분이 산삼 특유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h2와 Rg3를 제조회사가 특별히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대량 합성하거나 배양한후 분말화하여 캡슐로 제조하거나 성분을 보강한 드링크제로 만들었다는데 있다. Rh2와 Rg3는 인체의 면역능력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항암·항피로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어서 산삼제품의 주된 효능효과 역시 항피로 면역강화 항암작용으로 알려지고 있다.중근당 산에는 삼은 생명공학기술로 Rh2 Rg3의 함량을 증폭시킨 BST100을 주성분으로 하는데 홍삼에 견주어 각각 2000배, 70배나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로얄제리 타우린 비타민C를 추가했으며 복용이 간편하고 맛이 우수하다

는 평가다. 동성산삼배양근원은 산삼배양근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홍삼·가시오가피·계피 엑스와 녹용추출물을 이상적으로 배양했다고 강조했다. 녹십자PBM의 이뮤노업진은 일반인삼의 사포닌을 Rh2 Rg3로 전환하는 효소전환기술을 활용하여 캡셀당 홍삼 60g 산삼15g 분의 Rh2를 강화함으로써 암억제와 항암제 부작용과 내성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삼은 산삼성분에 상항버섯 균사체를 보강해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며 수술후 빠른 회복력을 자랑했다. 광동산삼배양근은 산삼의 조직을 분리·배양한후 산삼의 효과를 발휘하는 물질로 제조함으로써 천연 산삼의 유효성분을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 한국 R&D투자 세계7위 ·· OECD, 중국 600억弗로 세계 3위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와 외국인 투자급증에 힘입어 연구개발(R&D)분야에서 금액기준으로 세계 "빅3"으로 급부상했다. 우리나라의 R&D투자도 금액면에서 7위,국내총생산(GDP)비율 기준으로는 6위로 세계 일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7일 세계 주요 48개국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3 과학 기술 산업 득점표(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를 공개,이같이 밝혔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6백억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입,미국(2천8백20억달러)과 일본(1천40억달러)에는 뒤졌지만 독일(5백40억달러)을 추월하며 세계 3위의 R&D 투자국으로 올라섰다. OECD는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외국 R&D센터를 적극 유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R&D 금액은 2

백19억달러로 중국보다는 뒤지지만 선진7개국(G7)에 속하는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능가하는 규모다. GDP대비 R&D금액도 2.96%로 OECD평균(2.3%)은 물론, 미국(2.82%) 독일(2.49%) 프랑스(2.20%)등 대부분의 G7국가들을 웃돌았다. OECD는 그동안 2년마다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R&D현황을 조사해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등 18개 주요 비 OECD국가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각국의 R&D 투자금액은 정부와 일반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합한 것이다.

### 적포도주 폐질환에도 효과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항암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적포도주가 이번에는 치명적인 폐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BC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영국 임페리얼대 국립심장.폐연구소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홍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적포도주 내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성분이 만성폐색성폐질환(COPD) 환자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실험 결과 적포도주에 포함된 항산화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기존 COPD 치료약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COPD는 폐의 기능이 악화되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다가 결국에는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연구팀은 COPD 환자의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하는 대식세포(大食細胞)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흡연자 15명과 COPD 환자 15명의 폐조직 샘플을 채취, 적포도주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을 주입한

결과 샘플 내 사이토카인이 흡연자의 경우 94%, COPD 환자는 88%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 영국홍부학회의 존 하비 박사는 "적포도주와 심장질환 예방과의 관련성은 이미 나왔지만 만성적인 폐질환 증상 경감 역할에 대한 연구도 더욱 많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절한 수준의 적포도주 섭취는 폐의 염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포도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폐질환 예방의 왕도는 금연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정부 R&D지원 BT중심 전환돼야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비를 IT보다 BT에 집중되도록 정책기조가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시에 기업 이익구조 개선과 R&D 역량강화에 전력해야 한다는 것. 신석우 제약협회전무는 25일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열린 의약계 전문지 기자연수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약산업 비중이 90년 2.0%에서 2001년 1.55%로 축소되는 등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신전무는 "BINT 신기술융합산업으로서 제약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우리정부의 연구개발지원정책 기조는 변화가 없다"며 선진국처럼 신약개발의 고부가가치성에 주목하여 연구개발비 지원을 IT보다 BT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 과학기술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진국 정부 연구개발비 지원현황은 미국 25.9:1.9, 영국 12.6:1.7, 일본 10.0:4.3%로 모두 IT보다 BT에 주력한 반면 우리나라는 8.3:27.4%로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R&D 역량강화와 관련 신전무는 우리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방향은 500억원을 투자하



여 2조원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개량신약에 있다고 역설하고 △신약개발 촉진 특별법 제정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100%확대 등 R&D투자 인센티브 확대 △산학연정 R&D 클러스터 구축 △스코틀랜드 바이오센터 활용을 통한 선진기업간 R&D제휴 확대를 제안했다. 신전무는 또 업계의 열악한 이익구조를 개선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특허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규모의 경영을 도모할수 있는 M&A △합리적 약가관리와 공정거래풍토 조성 △일반의약품 매출 활성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기업의 높은 원가부담률과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풍토 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역설하고 직접적인 학회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및 대가성 지원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같이 우리의 의약품 거래관행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